



흥기난동 사건 관련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성명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는 최근 '서현역 문지마 흥기난동'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느꼈을 사회적 혼란과 심리적 공포감, 특히 희생자와 그 가족이 경험하고 있을 엄청난 충격에 큰 유감을 느끼는 바이다. 사회는 이들이 심리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쉽게 단정하거나, 강제치료만을 강화하는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져서도 안된다. 우리 학회는 최근 문지마 범죄 피해에 대한 심리 지원의 강화와 정신적 어려움이 있을 때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문지마 범죄 유가족의 애도를 돕고, 부상자들과 현장에서 직접·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시민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범죄 피해자 회복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범죄사건에 노출되면, 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언제 다시 똑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직접·간접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사회적 회복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일상생활 적응과 회복하는 단계까지 장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2차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직접·간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어도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접하게 되는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온라인 매체를 통해 피해범죄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사실무근 또는 과장된 정보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차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온라인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국가차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기반의 적극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체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정신건강이 취약해져 있을 때, 비난받거나 고립되지 않고 편견과 차별 없이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건강 문제가 급성으로 찾아왔다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신속하게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정신건강 문제가 만성화 된다면,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회복하고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서구의 경우 국가가 인정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통해 초기에 적극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이 자·타해 위험과 정신건강 문제 스크리닝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정신건강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현역 문지마 흥기난동’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립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고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는 공공 영역의 서비스 제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공공 영역과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임상사회복지사 등과 같은 면허제도를 통해 자격을 갖춘 정신건강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정신건강서비스의 지원체계가 다양화되고 접근성이 높아질 때, 치료와 상담이 시의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023년 08월 08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